

지역 메아리

김제보건소,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김제시보건소(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0월 정신건강의 달 지역사회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우울과 불안한 사람을 위한 영화치료 기법'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사회복지 및 상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1시부터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기관 종사자 및 관심있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김제시보건소 1층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박사겸 영화평론가인 심영섭 강사를 초청하여 불안, 우울군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영화치료 상담기법을 심층적이고 실무 적용 가능하도록 교육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태한 교월동장, 영농현장 방문

김태한 교월동장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수에 한창인 농가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관내 곳곳에서 가을걷이에 바쁜 농가들을 찾아가 준비한 두부김치와 막걸리 한 잔의 새참을 나누며 시정현안과 추진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바쁜 일정에 행정복지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26일 오전 10시 김제시청 직원은 물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및 자원봉사단체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은 방치폐기물, 하천변의 묵은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했으며, 특히,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 일대와 진입로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 정리하였다.

이석 환경과장은 "김제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 국제종자박람회 방문객들을 청결한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주요 공원 및 도로변의 환경정비가 잘 되어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정비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혁신도시 '이안' 아파트 분양

혁신도시 출퇴근 편리한 직주근접단지... 대형 호재로 미래가치 '주목'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가을 분양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며 활기를 띠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중소형 브랜드 아파트가 이달 중에 선보인다.

전북혁신도시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직주근접 아파트로 주목 받는 이서 '이안' 은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63-3 일대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84㎡ 총 82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이중 1단지 330세대가 이번 공급분이다.

최근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85㎡ 이하 중소형평형으로 100% 구성하며, 공간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전 세대를 채광 및 환기에 우수한 남향, 판상형 위주로 배치했으며 4Bay 혁신 평면구조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59㎡ 타입은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공간 실속을 높였으며, 84㎡ 타입은 알파룸 공간을 제공하여 84㎡타입에서 보기 힘든 4개의 방으로 구성, 주부의 공간활용을 고려하였다는 평가이다.

완전체로 완성되는 전북혁신도시 생활권프리미엄... 골조만 개발호재로 미래가치 UP

이서 '이안' 아파트 주변에는 공주팔팔로와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동서남북을 빠르게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펼쳐져 있다.

710번 국도, 서전주 IC를 이용해 주변 지역으로 출퇴근 여건도 수월하여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민성지구의 법원 검찰청 종사자들과 낮은 공실률, 높은 임대가로 고민하는 전북혁신도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투자자들이라면 눈독을 들일 만하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민성지구 등 신축 주거단지들과 인접해 있어 문화, 교육, 쇼핑 등에 걸쳐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총 10만1,642㎡ 규모의 쇼핑·패션 대형 유통센터인 코웰포드 아울렛(2019년 입점 예정)이 들어서면 생활환경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서 묘포장 개발 등 사업지 주변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다문화센터, 가족과 함께 하는 원예체험 진행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희순)가 가족사랑의 날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원예체험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개 가정이 참여해 가족의 개성을 듬뿍 담은 토피어리 만들기, 말랑말랑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원예체험을 진행해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면서 직장에서의 정시퇴근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쁜 주중에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 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다양한 가족사랑의 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는 "가족들이 평일에 모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유희순 센터장은 "직장생활과 가정 생활 모든 부분에서 균형있는 생활을 요구하는 요즘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가족 내 친밀감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임실에향장학회, 봉황인재학당 교육과정 공청회 열어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오는 11월 입학설명회를 앞두고 2018년 봉황인재학당 교육과정 학부모 공청회를 열었다.

26일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임실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9월에 모두 마무리돼 1,1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수도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계획 중인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존 정화조 처리로 인한 악취와 해충제거 등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새민금 유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비를 추가 확보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비도 많이 들고, 농촌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도시아이들 한테 밀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됐다"며 "그런데 봉황인재학당이 문을 열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아서 엄청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향장학회는 특히 내달 11월 대대적으로 개최될 봉황인재학당 입학설명회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며,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입학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되며, 2018학년도 학생모집과 강사진 구성, 수업계획 등을 소개하고,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개정 교육과정 핵심사항'에 대해서도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봉황인재학당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소개할 예정에 있어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애향장학회는 올해 초부터 읍면 순회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육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영명 기자

완주군, 내년 하수관거 사업 국비 141억 확보

소양 구진·운주 중촌·대둔산지구 신규 추진

완주군이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으로 국비 141억을 확보했다.

26일 완주군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2018년 하수관거 사업으로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한 국비 141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양면 화심리 구진 2단계 마을하수도, 운주면 장선리 중촌 2단계 마을하수도,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위한 설계비로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해 삼례 3단계, 삼관 2단계,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9월에 모두 마무리돼 1,1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수도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계획 중인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존 정화조 처리로 인한 악취와 해충제거 등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새민금 유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비를 추가 확보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19° 375ml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